

「青年」(1921-1940)에 나타난 반전(反戰) · 평화 · 비상시국 담론 및 기독교윤리적 해석*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반전(反戰) 관련 담론
 - 1. 포스딕의 반전론
 - 2. 윤룡의 반전론
 - 3. 기독교윤리적 해석
- III.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
 - 1. 박제호의 '인격존중론'
 - 2. 이대위의 '환경적 상쟁론'(環境的 相爭論)
 - 3. 떼취의 '세계 평화 기초론'
 - 4. 기독교윤리적 해석
- IV.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관련 담론
 - 1. 비상시국 정황
 - 2. 비상시국 관련 글들 분석
 - 3. 기독교윤리적 해석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9.12>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0568)

• ABSTRACT •

Discourses of Anti-war, Peace, and Emergency in YMCA's Journal "The Young Man"(1921-1940) and Christian Ethical Interpretations

Lee, Jang-Hyung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Ahn, Su-Kang (Lecturer,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uch theme as abolition of war, peace, emergency situation found in 「Cheongnyun(Young People)」(1921-1940) and to draw out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First, with regard to antiwar movement and cosmopolitanism, Forsdiek explicitly justifies abolition of war for the reason of cruelty, crime against humanity, unstoppable genocide. In the same vein, Woonlyong convincingly argues that Christianity cannot be compatible with war in view of its tragic calamity caused to human life. Further, as an alternative action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rld peace, Park Jaeho puts forward respect for human dignity, Lee Daewi comes up with friendly competition to overcome harsh environment, and "Basis of World Peace" makes a suggestion of the theory of peace by assess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tical, moral trends. Second, when confronted with emergency situation in the mid- and late-1930s, the majority of articles published by the journal 「Cheongnyun(Young People)」 deal with such topics as wartime system of Japan, justification of the unification of Japan and Korea as one body, devotion of people to the country, etc. Above all,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 under emergency situations, prayer for the imperial Japanese army, inspiration of the unification of Japan and Korea as one body, full mobilization of national spirit become prominent. It can be argued that the journal 「Cheongnyun(Young People)」 adequately addresses core issues related to peace and war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In addition, the journal does not just approaches such tricky issues as war and peace from realistic point of view, but also examine them in terms of human nature and mind. In so doing, it makes a meaningful attempt to interpret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Key words: YMCA, “The Young Man”, Peace, Christian Ethics, Antiwar Movement, Unification of Japan and Korea as One Body(Naeseonilche)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1921년 3월 창간부터 1940년 12월 폐간에 이르기까지 YMCA 기관지 「靑年」에 나타난 반전(反戰)·평화·비상시국 담론과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고찰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 반전·평화·비상시국 담론은 역사상 유례없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체험했던 터라 세계적으로도 뚜렷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靑年」에 나타난 반전(反戰)·평화·비상시국 담론 및 기독교윤리적 해석”이라는 제하에 반전 관련 담론,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관련 담론 등으로 하위주제들을 편성하여 분석할 것이며,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현재적 함의와 해석을 기하고자 한다. 「靑年」은 1921년부터 1940년까지 20년에 걸쳐 장기간 발행되었으며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기독교윤리적 시각들이 다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평화는 인류가 개인적,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인류의 삶의 질에 직결된 필연적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쟁들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 다층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며 종교적·윤리적 논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군국주의 세력이 통치한 독특한 시대적 정황을 담는다. 이 시기의 기독교는 서구에서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발아기의 신흥종교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는 당대 시대적 추이를 면밀하게 탐색하여 평화와 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靑年」을 통하여 이 논점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신학사상의 성립과정을 학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靑年」에 나타난 반전, 평화, 비상시국 등의 논제들은 창간 시점이 시기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문화정치 초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부연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논점으로서는 구라타 마사히코(藏田雅彦)는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天皇制と韓國キリスト教』)에서 한국기독교인들의 반전의식은 천황제의 군국주의 침략적 속성에 항거하여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정황에서 자연스럽게 군국주의와 대립양상을 취했던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¹⁾ 문화정치가 시작된 1919년경부터 1930년경까지는 반전·평화·비상시국이라는 주제의 논의가 무단정치기에 비해 조선총독부의 검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재임: 1936-1941) 총독 부임,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 강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등 전시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반전·평화·비상시국에 관한 담론은 조선총독부의 엄격한 문서검열을 피할 수 없었다. 「靑年」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가령 1930년경까지는 반전과 평화론을 주제로 한 글들이 자주 발표되었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기부터는 비상시국에서 일본의 전시체제를 칭송하고 지지하는 글들이 점차 비중 있게 게재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YMCA 기관지「靑年」은 본래 1914년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中央靑年會報」라는 제호로 발간되었으며 YMCA 회보와 유사한 성격이었다. 1921년 3월에 저널 명칭을 「靑年」으로 교체했으며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와 중앙청년회의 유대협력 사업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고 회보 수준을 넘어서서 종합 월간지로 출판되었다. 장로교 제4대 총회장을 역임한 김필수는 창간호 서문에서 청년회 현황보고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변천에 추이(推移)하여 기독교주의를 민족의 문명 향상적 선도호

1) 구라타 마사히코,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서울: 기독교문사, 1991), 61-62.

기 위함의 소이(所以)로다.”²⁾라고 소신을 밝혀 신앙을 바탕으로 문명향상과 계몽운동을 지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靑年」에는 국제 YMCA 활동 추세와 각국의 정세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사조, 예술과 삶 등 다방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조망한 글들이 수록되었으며 직업훈련, 사회 계몽, 교육계 진로 모색, 민족·농촌·여성운동, 체육활동 등 삶의 전 영역에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21년 3월에 창간된 「靑年」은 1940년 12월 일제의 강압조치로 폐간되기까지 20년 동안 출간되었으며, 기독교신앙을 단초로 민족계몽운동과 청년운동을 이끄는 지식 및 신앙계몽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 권당 정가는 시기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지만 창간호 발행 당시 판매가는 20전(錢), 반년치 발행분 6부는 일원(圓), 일년 치 발행분 12부는 2원으로 책정되었다.³⁾ 보급을 위해 중앙기독교청년회 청년잡지사에서 판매했고 서울과 지방에 속한 각 지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다.

YMCA의 기관지 「靑年」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2천 년대 들어 이장형의 “「靑年」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2023)⁴⁾와 안수강의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2022)⁵⁾, 이장형과 안수강 공저의 “「靑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2023) 등 3편이 발표되었다. 이장형은 「靑年」 문헌 해제, 해방 전 「靑年」을 발행한 역사적

2) 김필수, “「靑年」 발행의 首辭(수사), 「靑年」 창간호 (1921), 1.

3) 독자층은 대체로 기독교 신자들 혹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세계 동향과 근대화에 관심을 가진 식자층이 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921년 백미 한 말(16kg)은 3원 30전(330전)이었으며 이는 「靑年」 16.5권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 Cf. <https://zigzagworld.tistory.com/75>(1921년 백미 한 말 가격) 2024년 8월 3일 접속.

4) 이장형, “「靑年」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제55집 (2023), 265-288.

5) 안수강,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79집 (1922), 631-667.

가치, 그리고 신학적·기독교윤리적 함의를 고찰했다. 안수강은 창간호에 실린 글들을 분석하여 YMCA의 정신과 추구노선, 실천적 함의와 교훈점들을 제시했다. 한편 여성관 담론에서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직업선택, 혼인과 가정생활, 유소년들의 성교육과 태아의 인권 등을 다루어 인권을 중심으로 논했다.⁶⁾

본고에서는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와 1930년대의 전시체제 비상시국에 걸쳐 20년 동안 대중적으로 보급된 YMCA 기관지 「青年」을 분석함으로써 ‘반전 관련 담론’,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관련 담론’ 등을 고찰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기독교윤리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의 60~70%에 달하는 한자를 꼼꼼하게 관독하여 원문을 상세하게 탐독했고, 원문에서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한자를 여자적(如字的)으로 한역했으며, 표의(表意)를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했다.

II. 반전(反戰) 관련 담론

반전과 관련된 담론은 문화정치 시기 포스딕(Fosdick)과 운룡 등의 견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전반적으로 반전론을 염두에 두어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기조의 글들은 대체로 문화정치 후반기까지도 꾸준히 맥락을 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문화정치가 종료되고 1931년 일본 관동군(關東軍)이 자행한 만주사변과 그 산물인 1932년 만주국 건국, 1936년 일본 육군대장과 육군대신을 역임한 미나미 지로 총독 부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등 일련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은 이전 문화정치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상황

6) 이장형·안수강, 「「青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 사회윤리」 제57집 (2023), 421-450.

에 직면했다. 미나미 지로는 일제의 훈령에 따라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의 모토를 확립하여 전시(戰時) 군국체제에 돌입했으며 1937년 중일전쟁과 더불어 비상시국임을 선언하여 「青年」에는 점차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독려하는 글들이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관련 담론”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본장에서는 문화정치기에 발표된 반전 관련 담론을 분석할 것이며 우선, 반전과 관련된 주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포스딕의 반전론

포스딕의 글 원제는 “Shall We End War?”이며 역자는 이 글의 전체적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여 “전쟁폐지론”으로 의역했다. 포스딕은 이 내용을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약 3년 후쯤인 1921년 6월에 미국 장로교에서 강론했고 반전론의 취지를 담아 군비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⁷⁾ 그는 당대 인류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평화의 이상과 전쟁의 현실이 상호 충돌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직시한 만큼 전쟁과 문명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그는 단호한 태도로 전쟁과 문명 양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쟁 폐지이며 전쟁과 문명은 피차 극단적인 상극관계에 있을 뿐 아무런 유익도 추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예 전쟁 행위 그 자체를 가리켜 ‘야만풍’(野蠻風)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전쟁폐지를 강변했다. “과연 전쟁을 고만두든지 문명을 고만두든지 양자 중 일(一)을 선택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전쟁과 야소(耶蘇)의 정신은 일치(一致)·연구자 주 아니할 줄 알아서 전율(戰慄)할 만한 야만풍

7) 포스딕, “전쟁폐지론(Shall We End War?),” 「青年」 제1권 제8호 (1921), 22. 번역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음.

인 전쟁을 폐지하라고 합니다.”⁸⁾ 그는 1914년 8월 이전에 해아(海牙, Hague) 평화회의에서 세계 96개국이 최선을 다해 전쟁의 폐해를 막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세계대전의 비극적인 상잔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⁹⁾

그렇다면 왜 전쟁은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포스틱은 그 이유를 전쟁의 비참한 참상, 인류의德行에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무제한의 대량학살이 전개되기 때문이라는 점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포스틱은 전쟁폐지의 당위성으로서 전쟁이 인간사에 초래하게 될 비참한 참상을 들었다. 그는 전쟁의 참혹상에 대해 이는 결코 인간의 도의(道義)로서는 할 것이 아니며, 전쟁터는 청년들을 살육하는 도살장으로 전락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을 정당화함으로써 불법과 죄악을 교육하는 패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누구든지 전쟁의 참혹하고 잔악한 것을 실견(實見) [실제로 목격함] 연구자 주하고서 전쟁이 엇지 사람의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청년을 멸망시키는 도살장입니다. 훌륭한 청년들도 하야금 살인하는 법을 가르치며 무죄한 도성(都城)에다가 폭탄 던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전쟁이라 하는 것은 도훈 일[좋은 일] 연구자 주이 아닙니다.”¹⁰⁾

둘째, 포스틱은 도덕적 관점에서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든德行을 성취할 수 없으며 그 결말은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폐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창출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전쟁을 조직적 훈련 혹은 국민정신 고취라는 취지에서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종전 후에는 얼마나 도덕성이 극도로 타락했으며 성욕과 폭력의 최악상이 극명했는지를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한다고 했다.

8) 위의 글, 23.

9) 위의 글.

10) 위의 글.

그는 이 논지에 근거하여 바른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살인행각의 전쟁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전쟁은 덕행을 훈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군인들의 전쟁은 조직적인 훈련장이라고 하며 엇던이는 전쟁은 국민의 정신을 강장(強壯)케 하는 낙(樂)이라 합니다. (중략) 그러나 아니올시다. 금일 구주(歐州) 제국을 보시요. 전쟁 이전보다 얼마나 도덕의 표준이 저하하였스며 성욕(性慾)상 최악과 폭력의 최악은 전대(前代)에 말문(未聞)(이전에 듣지 못함-연구자 주)할 만큼 굉장하고”¹¹⁾

셋째, 전쟁은 참살의 방법에 있어서나 대상에 있어 무제한 대량살상이 자행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추진해온 파리강화회담, 헤이그평화회담 등 국제간 평화회의에서 전쟁의 추태(醜態)와 각종 규칙들을 마련해두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이러한 협약들은 한낱 휴지쪽으로 전략하고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거리낌 없이 인명을 대량 학살하는 것이 오늘날 자행되는 전쟁의 실태라고 했다. “전쟁에서는 살육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아(海牙, 헤이그) 평화회담에서 전쟁에 추태(醜態)를 제한하려고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전쟁이 되어서는 하등의 효과가 업게 되었습시다. (중략) 전쟁이 우리의 도덕을 연단케 한다 함도 거짓말이요 살인법은 그 수단과 무기와 비용이 제한이 업는고로 누구든지 전쟁을 도읍 것내둬거나-연구자 주 찬성할 자이 업슬 것입시다.”¹²⁾

이처럼 포스틴은 전쟁폐지론의 당위성을 전쟁의 참혹성, 덕행 상실, 무제한 대량 학살 등 세 가지로 논증한 후 기독교와 전쟁을 본질상 상호극단적 대척점에 두었다. 그는 “참 기독교와 전쟁은 조화치 못합니다.”라고 확언했으며, “주여 주여 불너온불러온-연구자 주 기독교를 위하여 선행하야 사람들이 고만 전쟁을 배호지(배우자-연구자 주) 않게 될 시대에

11) 위의 글, 23-24.

12) 위의 글, 24.

향해야 진진하지 안이하시겠습니까.”¹³⁾라고 호소했다.

2. 운룡의 반전론

운룡¹⁴⁾ 역시 “전쟁에 대한 기독교도의 태도”(1922)에서 포스딕과 마찬가지로 반전론의 입장을 취했다. 그는 1918년에 종료된 제1차 세계대전을 회고하며 여전히 전쟁의 씨를 뿌리는 인류의 도발적 행태를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라면 장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고 예고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혜안(慧眼)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쟁 발발은 인류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이며 전쟁에 대한 태도는 예외 없이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왜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지 ‘당위적 근거들로서 전쟁이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전쟁이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식인가?’, ‘전쟁이 인류행사에 필수적인 수요물(需要物)인가?’, ‘과연 전쟁이 기독교적인가?’ 등 네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째, 전쟁이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그는 과거의 세계대전은 연합국 측에서 특정 국가의 단독 행위(예: 침략과 정복)와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민본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치러졌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살육으로 인간을 수성화(獸性化, 짐승화)했다는 점에서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전쟁은 정의구현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둘째, 전쟁이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식인가? 그는 전쟁으

13) 위의 글, 25.

14) 운룡(雲龍)에 대해서는 내력이 별도로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필명(筆名)인 것으로 사료된다. 운룡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이라는 뜻이며 흔히 영웅호걸들을 칭할 때 구사되었다.

15) 운룡, “전쟁에 대한 기독교도의 태도,” 「青年」 제4권 제6호 (1924), 6-7.

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과연 전쟁이 필수적인지 원초적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승리를 쟁취한 동맹국들이 한편에서는 군비축소를 주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강병책(強兵策)을 모색하여 무기를 확보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겨냥하여 이러한 행각은 결국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¹⁶⁾

셋째, 전쟁이 인류행사에 필수적인 수요물인가? 그는 이 점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었다. 그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논리는 개인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회 또는 국가 간 투쟁에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인간사에 지속적으로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했다.¹⁷⁾

넷째, 과연 전쟁이 기독교적인가? 그는 전쟁 그 자체가 기독교신앙에 부합되는지 기독교윤리 차원에서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방책으로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을 적용하셨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만일 전쟁 그 자체가 인류 행위의 일대 죄악이라면 전쟁을 통해 의를 구현하겠다는 신념과 태도 역시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¹⁸⁾

참고로, 이대위는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1922)에서 “전 세계로 하여금 찬란 광명의 과학세계를 창조하여야 할지니[과학발전을 통한 평화 구현-연구자 주 환연하면 현대는 곧 군력쟁투(軍力爭鬪)의 시대가 안이요 다만 과학만능의 시대이라 하노라.”¹⁹⁾라고 주장하여 당대 시류(時流)의 추세를 염두에 두고 반전론을 제기했다.

16) 위의 글, 7.

17) 위의 글.

18) 위의 글, 8.

19) 이대위,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 『青年』 제2권 제3호 (1922), 14.

3. 기독교윤리적 해석

「青年」에서 논의된 반전 혹은 전쟁폐지 사상들은 오늘날 기독교윤리학의 주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신교 기독교윤리학 전통에 의하면 전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는 성전론자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만 전쟁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당전쟁론자들, 절대적인 반전론자들, 그리고 평화주의자들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반전 및 평화주의자들은 특히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요더(John H. Yoder)는 『예수의 정치학』(*The Politics of Jesus*)에서 비폭력적 저항의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 즉 공식적인 황제숭배를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칼리굴라(Caligula; Ga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의 형상을 세우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전쟁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제2계명에 반(反)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지 않았다.²⁰⁾

종교개혁 이후에도 재침례파가 태동한 배경을 보면, 종교와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을 용인할 것인지에 따라 큰 갈래로 나누어졌다. 이 가운데 정당전쟁론을 주장하는 개신교가 현재까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떠한 형태의 무력 사용도 용납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는 평화주의론에 적잖게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970년대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쟁의 명분과 합리화를 위해 성경적인 근거들로 제시했던 성전(聖戰)의 개념에 대해 제동을 건 대표적인 인물로서 민중신학을 체계화한 안병무를 들 수 있다. 그는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쟁 상정 그 자체를 단호하게

20) 존 H. 요더,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166-167.

반대했으며 물리적 힘을 가진 정권이 아닌 민(民)이 주도하는 통일론을 구축했다.²¹⁾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악한 세력에 저항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별반 실효적 능력이 없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제한적 폭력 사용에 동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주지할 점으로서, 인간이 본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한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정당전쟁론 또한 탐욕과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점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통해 개개인이 도덕적인 반면 공동체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한다고 본 논증과도 상통한다. 그는 이 저서에서 개인도덕과 사회도덕(공동체 도덕) 사이의 모순을 논증했다.²²⁾

III.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

포스틱과 윤룡이 원론적으로 전쟁의 참상, 덕행의 상극, 무제한 대량학살 등에 근거하여 반전론을 천명했다면 박제호, 이대위, 떳취 등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제호는 “전후(戰後) 사상의 추세와 그 근저적(根底的) 정신”(1922)에서 인격존중론을, 이대위는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1922)에서 환경적 상쟁론(相爭論)을, 떳취는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1922)에서 세계 평화 기초론을 논했다. 박제호는 인간 내면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대위와 떳취는 실천

21)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신학사상』 제151집 (2011), 153, 156. 안병무, “민족적 과제와 교회,” 『기독교사상』 제211집 (1976), 50-51. Cf. 안수강, “안병무(安炳茂)의 민중론에 기초한 통일론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107-108.

2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257-277.

적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적, 그리고 외적인 면을 모두 조명해주었다.

1. 박제호의 ‘인격존중론’

프랑스대혁명(1789)은 영국의 청교도혁명(1642), 미국독립운동(1775)과 더불어 세계 3대 시민혁명으로 꼽히며 근현대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된 핵심적인 동인으로 인식한다. 특별히 프랑스대혁명과 관련하여 계몽 사상은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모토로 내세웠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현대의 인간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²³⁾ 박제호는 3대 시민혁명 중 프랑스대혁명에 주목했으며 “전후(戰後) 사상의 추세와 그 근저적(根抵的) 정신”(1922)을 통해 프랑스대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의의를 한 지평에서 조명했다. 그의 논지는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한 데서 참가치가 드러난다.²⁴⁾ 그는 ‘평화’와 ‘인격’을 한 지평 위에 인과관계로 입체화하여 조명했다. 즉 평화가 보장될 때 그 결과 인격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는 만일 이 세상에 평화가 파괴된다면 인격이 경시되고 말살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제호는 “전후(戰後) 사상의 추세와 그 근저적(根抵的) 정신”에서 프랑스대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 측 승리를 한 지평 위에 병립하여 조명했다. 그는 세계대전은 전쟁을 야기한 불의한 나라들을 응징함으로써 국지적인 프랑스시민혁명을 세계화했다는 점에서 전자를 ‘근저적(根抵的)’ 혹은 ‘소규모’에 비한다면 후자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대사상에

23) Cf. 박의경, “프랑스대혁명과 근대기회 그리고 시민 여성의 희망과 절망: 울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권 제1호 (2012), 186.

24) 박제호, “전후(戰後) 사상의 추세와 그 근저적(根抵的) 정신,” 「青年」 제2권 제4호 (1922), 16.

직결된다고 보았다. “호상(互相) 밀접한 관계- 즉 저회(這回)저번-연구자 주위의 대 전쟁은 곳 불란서(佛蘭西)혁명은 저액(這厄)지난번-연구자 주위의 대 전쟁을 소규모로 축약한 것에 불과한 관계가 잇도다. 그러면 불란서혁명의 본질-외면적이 아니오 그 근저적 성질을 천명하기만 하면 오인(吾人)은 자연히 현대의 혁신적 사상의 근본적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잇게 도다.”²⁵⁾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프랑스대혁명은 어떤 점에서 의미를 갖는가? 그는 인간 개성의 존엄 의식이자 인간적 자각이며 인격의 가치와 미려(美麗)한 인격의 열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인은 가장 간략한 원리로써 『我』의 인격적 자각 즉 개성의 존엄의 의식이 불란서혁명의 근본 동기요 또는 이 혁명이 확실히 축성(築城)한 현대사상의 근본이라 하노라. (중략) 현금(現今)의 대 동요(大 動搖)는 어대까지나 모다 이 근저적 정신(인격 존중-연구자 주)에 기한 것임을 확인치 아니할 수 업노라.”²⁶⁾ 이렇듯 박제호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격의 고유한 존엄성에 주목했으며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평화의 뿌리가 된다고 이해했다.

2. 이대위의 ‘환경적 상쟁론’(環境的 相爭論)

이대위²⁷⁾는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에서 소위 국가의 물리적 힘을 앞세우는 소위 군벌(軍閥) 철학파들이 전쟁론을 주장하여 인간의 살상을

25) 위의 글, 16.

26) 위의 글, 16-17.

27) 이대위(1896-1982)는 평북 용천에서 출생했다. 선천 신성학교, 북경대학, 콜롬비아 사범대학, 예일대학 등을 졸업했으며 해방 전 기독교동우회, YMCA(기독교청년회) 운동, CE(기독교면려회) 운동에 헌신했다. 105인 사건, 삼일운동, 수양동우회 사건 등에 연루되어 복역했으며 출옥 후 1941년 빈자들을 위한 민중병원을 설립했다. 해방 후 과도정부 노동부장, 삼척 탄광 이사, 건국대 교수직과 이사직, 흥사단 이사장, 유정학회 회장, 상해기념사업회 회장, 종교연합 세계평화회의 의장직 등을 역임했다.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12)』 (서울: 기독교문사, 1993), 1121.

정당화하는 비극은 절대적 동류살상(同類殺傷)의 범죄행위이며 그 원인은 전쟁과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인류의 생존경쟁을 치르려는 오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는 살상은 결코 생존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없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책은 인류가 협력하고 상호(相助)하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했다.²⁸⁾ 즉 인류가 환경으로 상쟁(相爭)할 때 진정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위가 말하는 ‘환경적 상쟁론’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고상한 문화적 동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하고 이로써 마침내 인류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에 의하면 상쟁의 ‘쟁(爭)’은 물리적인 싸움 혹은 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반자의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협력하고 돕는다는 뜻이며 ‘노력’과도 같은 의미이다. 가령 예를 들어 군대의 힘만 앞세워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누탈할 것이 아니라 현대의 발달된 과학지식을 심분 활용하여 좋은 기구들을 발명하고 서로 미흡한 환경을 개척함으로써 소기의 경제적, 정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노력을 보여준 19세기의 가장 모범적인 공헌자로서 영국 증기기관차 발명가인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을 들었다.²⁹⁾ 이처럼 이대위는 군벌 철학파들의 전쟁을 통한 상호경쟁론을 일축하고 철저하게 ‘환경의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군벌 철학파들의 전쟁론을 뚫건디 전쟁은 곳 인류 생존경쟁의 표시를 위함이라 하였스느 그러나 반대학자들의 설명에 거(據)하건데의거하건데-연구자 주 전쟁은 결코 민족 진화상의 필요 행동이 안이요 (중략) 인류가 협력 상호해야 환경의 노력(환경적 상쟁-연구자 주)으로 더부러 분투 노력한다 하면

28) 이대위,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 14.

29) 위의 글.

이는 춤으로 민족적 진보에 일사천리의 세(勢)를 가졌다 할 것이로다.”³⁰⁾ 그는 인류가 건전하게 환경으로 상쟁할 때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로써 전 세계에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며 온 인류가 진정한 진보와 행복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³¹⁾

3. 떳취의 ‘세계 평화 기초론’

떳취는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를 「青年」 제2권 제8, 9, 10회 (1922년 9~11월)에 연속 게재하여 세계 평화 기초론을 논했으며 필명(筆名) 일파(一派)가 번역하여 수록했다.³²⁾ 떳취는 미국 웨슬리언대학 부교장 겸 역사과 담임교수로 소개되어 있다. 그는 세계의 경제, 정치, 도덕적 추세에 주목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그 후유증이 심각한 정황을 고려하여 경제, 정치, 도덕 등 세 방면에 걸쳐 세계 평화 기초론을 논증했다. 이 글은 그가 전제한 “전란제1차 세계대전-연구자주의 최후책을 강구하여”³³⁾에서 드러나듯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에 대한 반론을 단초로 삼았으며 전후(戰後) 복구와 미래적 회복을 위한 과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떳취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교역을 시행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과거에는 각국이 쇄국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스스로도 물품 생산과 공급, 그리고 자체 소비로써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대는 세계화의 국면을 맞아 더 이상 국가단위

30) 위의 글.

31) 위의 글, 15.

32) 이 글의 영문판 목차는 심하게 손상되어 저자 떳취의 철자 및 영문제목 등은 판독이 불가능하며 역자인 일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

33) 떳취, 일파 역,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 「青年」 제2권 제8호 (1922), 27. 영문판 목차는 심하게 손상되어 저자 떳취의 철자 및 영문제목 등은 판독이 불가능하며 역자인 일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의 쇠국정책을 지속할 수 없고 국가가 자체적인 능력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간 수입과 지출을 장려하여 세계화의 대열에 합류해야만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³⁴⁾

둘째, 정치 문제 또한 국가 간에도 교류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몇몇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창설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과 국제법을 예시했다. 그는 법질서 역시 세계화의 추세이며 한 나라의 법이 자기 나라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 사유로서 “국제연맹에도 행정수권자를 두어 각 국민을 지배 보호하게 할 것이외다. 이 행정기관에는 경제적 방면을 연구하여 각 민족의 행복을 보호할 권리까지 위임하여야 할 것이외다.”³⁵⁾라고 역설하여 이 원리를 따를 때 인류가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셋째, 몇몇은 급속한 현대화와 더불어 사상계 역시 급변하면서 인류의 도덕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악 간 문제 즉 도덕문제를 연구함이 더 필요한 일이외다. 과거 백년 세계의 변화와 같이 사상계는 대변동이 되었읍니다.”³⁶⁾라고 문제를 제기한 후 “선악 판단에 대한 동일 표준을 정하는 것은 과연 세계 평화의 기초외다. (중략) 동일 표준의 도덕이 기초되지 아니하면 무효일 것이외다.”³⁷⁾라고 설파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민감한 일례로서 당시 각국의 군비축소 회담이 공정성을 갖추지 못할 때 이기심과 부도덕을 낳게 될 것이며 허울뿐인 기만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34) 위의 글, 28.

35) 몇몇, 일과 역,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2),” 「青年」 제2권 제9호 (1922), 8.

36) 몇몇, 일과 역,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3),” 「青年」 제2권 제10호 (1922), 12.

37) 위의 글, 14.

4. 기독교윤리적 해석

반전이나 평화에 관한 주장은 단지 현상적인 차원에 관한 논의 만으로서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인간의 도덕적 한계성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에 주목해야 한다. 박도현은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에서 기독교의 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서로 상이한 신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상호 다른 인간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³⁸⁾ 이러한 논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정치 사회적 역할 관계나 경제적 문제 해결만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인간 심연의 양심과 영적인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언뜻 진부한 주장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이며 실효성 있는 진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青年」에서의 전쟁과 평화 관련 논의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한계를 제시한 기독교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세계 밖에 서서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인간을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하여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연의 흐름과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주장들은 인정될 수 없다.”³⁹⁾

38) 박도현,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24.

39) 라인홀드 니버,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1*, 오희천 역, 『인간의 본성과 운명1』 (서울: 종문화사, 2013), 213.

IV.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관련 담론

1. 비상시국 정황

1919년 삼일운동 직후부터 시행된 문화정치가 1930년 무렵에 종료되고 1931년 관동군 만주사변, 1932년 만주국 건국,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30년대 중반 미나미 지로가 지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모토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이전의 문화정치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 문화정치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허용된 사상적 표현마저도 1930년대 중후반 전시체제로 치달으면서 철저하게 굴절되고 유린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 중반부터 민족운동 억압 전략으로 ‘치안유지법’(1925년)을 선포하고 사상 탄압을 추진하기 위해 ‘고등계경찰’(1928년)을 설치했으며, 대토지소유제를 촉진시켜 조선인 소작농들을 양산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피폐화시켰다. 1930년대 중후반부터 1940년대 초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신궁과 신사 참배 강요, 신학교 폐교, 창씨(創氏) 개명, 제2차 세계대전, 강제 징용, 강제 징병, 하청과 용역, YMCA와 YWCA 해체, 정신대(挺身隊) 차출, 애국기(愛國機) 헌납,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설립, 선교사 일괄 추방 등이 보여주듯이 비상시국 체제에 돌입했다.⁴⁰⁾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적 정황에서 「青年」에 반전 혹은 평화론과 관련된 글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1930년대 중후반부터 폐간되던 1940년까지는 일제의 압력에 의해 대동소이한 주제의 비상시국 관련 담론들이 반복적으로 게재되었다.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일제의 전시체제

40) 1930년대 비상시국과 관련된 일제의 탄압상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04-309. 박지동, 『한민족에 대한 日·美의 종속화 교육 및 언론 시책에 관한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6-110. 변태섭, 『한국사통론』(서울: 삼영사, 1993), 459-533.

를 찬양하고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옹호하는 글들, 모든 국민이 일체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것을 권장하는 이데올로기적 내용 일색이다. 이로써 「青年」은 전시체제와 더불어 위기에 처했으며 1940년 12월에 일체의 강요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에서 YMCA는 전시체제에서 일체의 물리적 강요와 회유에 굴복하여 신사참배, 일본의 국가체제 및 전쟁의 신성성 홍보활동, 하청과 용역 담당, 세계YMCA연맹 탈퇴(1938), 해체 등 숭한 수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⁴¹⁾ 1938년부터 1940년도에 이르기까지 「青年」에 수록된 비상시국과 관련된 글들을 정선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비상시국 관련 글들(1938-1940)

연도	권/호	저자	제목	면수
1938	3집(7월)	편집자	사변 일주년을 제(際)하여	2
	6집(10월)	홍병선	국민총동원과 총후 후원(銃後 後援)	7
	7집(11월)	홍병선	기독교도와 시국	7
		편집실	국민정신동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	8-11
1939	8호(1월)	구자옥	신년을 맞으며 비상시국에 처한 오인의 각오	3
		신공숙	비상시국하에 신년을 맞으며	4-5
	9호(2월)	장덕수	비상시국과 생활개선	11-12
	10호(3월)	-	비상시국 국민생활 개선준비	11-12
	17호(11월)	내각정보부	전시국민 생활십계	2
18호(12월)	-	국가를 위하여 금을 정부에 매각합시다	2	
1940	19호(1월)	윤치호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私見)	4-5
		윤치영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함	8
	23호(6월)	-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방침	9-11
	26호(9월)	편집실	전시 국민생활 체제 확립에 관한 총독부 통첩	14-16
	27호(10월)	편집실	전시 국민생활 체제 확립 기준안	15-16

41)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61;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2)』 (서울: 기독교문사, 1994), 1189-119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505.

2. 비상시국 관련 글들 분석

〈표 1〉에 있는 글들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두드러진 주제들로서 비상시국 정황에서의 생활개선 전략, 일본군을 위한 기도,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신, 국민정신 총동원 등의 항목들로 압축할 수 있다. 각기 저자는 다르더라도 글을 쓴 취지나 목적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한결같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독려하고 전시체제에 돌입하려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두었다. 위의 표에 정리한 글들 중 “비상시국 국민생활 개선준비”, 홍병선의 “기독교도와 시국”, 윤치영의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함”, 윤치호의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私見)”, “국민정신동총동원조선연맹 강령·실천요목”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글들에 비해 비상시국 정황에서의 생활개선 전략에 관한 글들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실생활에 직결된 의복, 식량, 주거, 각종 의례, 사회풍조 등을 다루었다. 특히 의례 분야에는 매일 아침 황거(皇居) 요배(腰拜, 허리를 굽혀 절함), 축제일 일본 국기 게양,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낭송이 강조되었다. 사회풍조에는 몰차 애용과 소비 절약, 사교상의 관례 개선, 음력 폐지와 양력 사용, 미신 타파, 시국 여행(勵行, 힘써 행할 일) 등이 규정되어 있다.⁴²⁾

둘째, 비상시국에서 기독교도들이 황국신민으로 처신해야 할 자세는 홍병선의 글 “기독교도와 시국”(1938)에 가장 뚜렷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는 전적으로 한국기독교인들이 천황의 신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며 “일본 국제 명징(明徵, 확증), 국민정신 총동원, 총후(統後) 후원, 정신 작흥(作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우리의 매일의 언행, 생활, 직업에 낮타내야 할 것이다.”⁴³⁾라고 헌신할 것을 독려했다.

42) “비상시국 국민생활 개선준비,” 「青年」 제10호 (1939), 11-12.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青年」 편집실에서 편집한 글로 사료됨.

43) 홍병선, “기독교도와 시국,” 「青年」 제7집 (1938), 7.

셋째, 윤치영(좌옹 윤치호의 사촌 동생)의 글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함”(1940)은 논설문 형식이 아닌 기원문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그는 중국대륙에 진출하여 전장(戰場)에 임전한 일본군들을 위해 몇 가지의 제목들을 기술했으며 황군의 무운장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실 풍성하신 은총과 보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후속 물자 보급, 황군의 소명의식, 조선인의 황국신민화 결단과 신동아건설(新東亞建設)을 위한 분투 등을 다짐했다.⁴⁴⁾

넷째,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에 관한 소신은 윤치호의 글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私見)”(1940)에 면밀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는 이 이데올로기적 모토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으로는 분명하게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려면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나아가 조선 사람이 천황폐하의 적자가 된 이상 일본인과 형제의 의를 맺은 것이며 따라서 내선일체를 바탕으로 이들과 더불어 황국신민으로서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⁴⁵⁾

다섯째, 국민정신 총동원에 관한 내용은 “국민정신동총동원조선연맹 강령·실천요목”에 실천사항들이 상술되어 있다. 이 글에는 “매일 아침 황거 요배, 신사참배 여행, 황국신민 서사 낭송, 국기 존중 및 게양, 국어 생활, 비상시국 생활기준 실천, 국산품 애용, 소비절약, 국채응모 권장, 생산증가 및 군수품 공출, 자원 애호, 근로보국대 활약, 근로 증가, 농산어촌 갱생, 전가(全家) 근로, 응소(應召) 군인 환영 및 부상병 위문, 출정군인과 유가족 위로, 순국자 영령 묵도, 유언비어 금지, 방공방첩⁴⁶⁾ 등 모두 21가지 항목이 정리되어 있다.

44) 윤치영,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함,” 『青年』 제19호 (1940), 8.

45) 윤치호,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私見),” 『青年』 제19호 (1940), 4-5.

46) 편집실 편, “국민정신동총동원조선연맹 강령·실천요목 편,” 『青年』 제7집 (1938), 11.

3. 기독교윤리적 해석

일제의 전쟁을 옹호하는 이상의 발언들과 주장들은 시대적 상황과 20년간 발행된 저널 전체의 분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고 소수의 저자들에 의해 작성된 단편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당시 기독교의 굴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수치스러운 단면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YMCA가 비상시국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선총독부와 타협하고 협상해야만 하는 굴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진실과 정의를 말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반성적인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교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과 중세시대 토마스(Thomas Aquinas) 등이 주장한 정당전쟁론적 기독교 전통을 고려하면 적법한 통치자에 의한 전쟁 선포,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행적(先行的) 노력, 사랑과 근신의 동기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 윤리적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쟁과 무력 사용이 용인될 수 있다. 환언하면 정당한 전쟁이라면 불가피한 무력 사용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도 합법적인 절차와 선전포고, 전쟁을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1930년대와 1940년대 일본이 군국주의 체제하에 획책한 전쟁은 폭력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1930년대 중후반에 「青年」에 기술된 일부 논의들은 전시상황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전쟁에 동의하는 치욕적이고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문화정치 시기에 기독교 문인들이 이전의 통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전시체제를 독려했던 태도를 취했던 것은 일제의 압제와 강요에 굴복한 시대적 산물이었다는 아픔도 기억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1920년대와 1930년대 「靑年」에 나타난 반전·평화·비상시국 담론을 고찰했으며 세부적인 하위주제들로서 반전 관련 담론,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관련 담론 등을 숙고했다.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전 및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과 관련된 담론은 문화정치 시기 포스틱, 윤룡, 박제호, 이대위, 떳취 등의 견해에 나타난다. 포스틱은 “전쟁폐지론”에서 전쟁폐지의 당위성으로서 전쟁의 비참한 참상, 덕행 상실, 무제한 대량 학살 등 세 가지로 논증했다. 윤룡은 “전쟁에 대한 기독교도의 태도”에서 전쟁이 초래하는 술한 재앙들을 들어 기독교와 전쟁은 상호 병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서 박제호는 “전후(戰後) 사상의 추세와 그 근저적(根抵的) 정신”에서 인격존중론을, 이대위는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에서 환경적 상쟁론을, 떳취는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에서 세계의 경제, 정치, 도덕적 추세를 간파하여 평화론을 논증했다.

둘째,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 담론과 관련하여 반전과 평화론에 관한 글들은 수록되지 않았고 일제의 전시체제, 내선일체의 정당화, 일제 당국을 위한 한국인들의 헌신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요 주제들로는 비상시국에서의 생활개선, 일본군을 위한 기도,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신 고취, 국민정신 총동원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글들에는 일본 국체 명징(明徵), 국민정신 총동원, 총후(銃後) 후원, 정신 작흥(作興), 정신 고양 등이 강조되었으며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정당화하는 논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국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다.

이제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青年」에 나타난 반전·평화·비상시국 담론을 종합해볼 때 「青年」에서는 개신교 기독교윤리학에서 평화와 전쟁에 관해서 다뤄야 할 핵심적인 논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평화와 전쟁의 난제를 현상계의 가시적인 혹은 근시안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간 내면의 본성과 심성의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폭넓게 기독교윤리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 초창기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유아기적 단계였음에도 일제강점기 식민체제 및 전시체제하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고민하고 답변해야 할 것인지 성경적 관점에서 진지한 담론을 전개했다. 해방 전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곡과 역정의 과정에 있었기에 다양한 논의들이 축적될 수 있었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윤리관은 그만큼 더욱 성숙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신학사상』 제151집 (2011), 141-171.
- 구라타 마사히코.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2)』.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_____. 『기독교대백과사전(12)』.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길선주. “평화의曙(서).”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경성: 활문사서점, 1922, 28-42.
- 김필수. “「青年」발행의 首辭(수사).” 『青年』 창간호 (1921), 1.
- 니머, 라인홀드.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1*. 오희천 역. 『인간의 본성과 운명1』. 서울: 중문화사, 2013.
- 똥취, 일파 역.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 『青年』 제2권 제8호 (1922), 27-35.
- _____. 일파 역.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2).” 『青年』 제2권 제9호 (1922), 6-10.
- _____. 일파 역. “세계 평화와 3대 기초문제(3).” 『青年』 제2권 제10호 (1922), 12-16.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도현.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박의경. “프랑스대혁명과 근대기획 그리고 시민 여성의 희망과 절망: 울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권 제1호 (2012), 183-214.
- 박제호. “전후(戰後) 사상의 추세와 그 근저적(根底的) 정신.” 『青年』 제2권 제4호 (1922), 15-19.
- 박지동. 『한민족에 대한 日·美의 종속화 교육 및 언론 시책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변태섭.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1993.
- 유경상. “정의의 力(력).”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경성: 활문사서점, 1922, 66-76.
- 안병무. “민족적 과제와 교회.” 『기독교사상』 제211집 (1976), 42-51.

안수강. “안병무(安炳茂)의 민중론에 기초한 통일론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79-119.

_____. “일제 문화정치 초기 『백목강연(百牧講演) 第一集』(1921)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 분석-홍병선, 김형식, 이범진, 조종범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학논총」 제124집 (2022), 203-237.

_____.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青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79집 (2022), 631-667.

요더, 존 H.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윤룡. “전쟁에 대한 기독교도의 태도.” 「青年」 제4권 제6호 (1924), 6-8.

윤치영. “황군(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함.” 「青年」 제19호 (1940), 8.

윤치호. “내선일체에 대한 사견(私見).” 「青年」 제19호 (1940), 4-5.

이대위. “인종 개량문제의 전쟁관.” 「青年」 제2권 제3호 (1922), 10-15.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이장형. “「青年」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제55집 (2023), 265-288.

이장형·안수강. “「青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제57집 (2023), 421-450.

편집실 편. “국민정신동충동원조선연맹 강령·실천요목 편.” 「青年」 제7집 (1938), 8.

포스닥. “전쟁폐지론(Shall We End War?).” 「青年」 제1권 제8호 (1921), 22-24.

홍병선. “기독교도와 시국.” 「青年」 제7집 (1938), 7.

“비상시국 국민생활 개선준비.” 「青年」 제10호 (1939), 11-12. 저자 불기(不記).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https://zigzagworld.tistory.com/75> (2024년 8월 3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13일

심사개시일: 2024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02일

 • 국 문 초 록 •

본고에서는 「青年」(1921-1940)에 나타난 반전·평화·비상시국 담론을 고찰했으며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현재적 함의를 제시했다. 첫째, 반전·세계론과 관련하여 포스딕(Fosdick)은 전쟁폐지의 당위성을 비참한 참상, 덕행의 상극, 무제한 참살 등에 두었다. 운룡(雲龍)은 전쟁이 초래하는 심각한 재앙을 들어 기독교와 전쟁이 상호 병립될 수 없다고 논증했다. 세계 평화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서 박제호는 인격존중론을, 이대위는 환경적 상쟁론(相爭論)을, “세계평화기초론”에서는 세계의 경제·정치·도덕적 추세를 진단하여 평화론을 논했다. 둘째, 1930년대 중후반 비상시국에 직면하여 게재된 글들은 일제의 전시체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당화,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헌신 등이 주류였으며 비상시국에서의 생활개선, 황군(皇軍)을 위한 기도, 내선일체 정신 고취, 국민정신 총동원 등이 부각되었다. 「青年」에서는 개신교 기독교윤리학의 평화와 전쟁에 관련된 핵심적인 논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평화와 전쟁의 난제를 현상계에 표출된 가시적인 사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성과 심성의 문제로까지 숙고하여 폭넓게 기독교윤리학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청년회, 「青年」, 평화, 반전(反戰) 의식, 기독교윤리, 내선일체
